



[산업] 최태원 SK회장, SK이노 서산공장 방문 “글로벌 메이저 돼달라” 05



Life

[금융] 지방은행, 수도권 틈새시장서 돌파구 찾는다 08



4만 피트 상공서 만든 하우스맥주를... 해외여행, 하늘길도 즐긴다

에티하드항공은 아부다비 경유 승객대상 호텔2박 프로모션 진행중이다.아부다비 사디아트 비치. /에티하드항공



싱가포르항공 프리미엄 지역항공사 실크에어는 5월2일부터 부산-싱가포르 직항노선을 주4회 운항한다. /실크에어



영국항공, 100주년 기념 맥주 '스피드버드100'기내 제공. /영국항공



에어뉴질랜드는 11월23일 부터 주3회 오클랜드공항 으로 운항한다. /에어뉴질랜드

메트로 트레블

외국가는 하늘길이 더욱 다양해지고 재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월 2일부터 부산 시민들은 해외여행 하기에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비행편을 잡기 쉽지 않았던 뉴질랜드 가는길도 11월부터 주3회 운항해 편리하게 갈 수 있다. 터키항공이 이스탄불에 새롭게 허브공항을 오픈했고, 영국항공은 4만 피트 상공에서 쓴맛과 과일향이 풍부한 맥주를 제공한다.

신규취항·운항 품성

2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 프리미엄 지역 항공사 실크에어(Silk Air)와 부산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부산-싱가포르 직항 노선을 주 4회 운항한다. 이로써 부산 출발 여행객들은 싱가포르를 경유해 싱가포르항공과 실크에어가 보유한 전세계 34개국 98개 도시로 마음껏 여행할 수 있게 됐다. 푸 차이 우 실크에어 CEO는 “새로운노선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여행객들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를 연결하는 실크에어와 싱가포르항공의 네트워크에 연결성과 접근성을 더 증대시켜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산 여행객들은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해외여행을 하는것이 더 편리해질”이라고 말했다. 시아 치 첸 싱가포르항공 한국 지사장은 “싱가포르항공과 실크 에어는 부산-싱가포르 노선 운수권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20개 도시를 운항 중인 에어뉴질랜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주3회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으로 운항한다. 12월 말 부터 2월 중순까지 성수기에는 주 5회 증편 한다. 에어뉴질랜드의 CRO인 캠 윌리스는 “에어뉴질랜드의 32번째 신규 국제선 목적지가 서울이라는 발표에 대해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경로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4만 여명의 한국인들과 고향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이며, 뉴질랜드에 와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한국 여행객들 에게 편리한 선택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가장 빨리 잇는 유럽 항공사 핀에어(한국지사장 김동환)는 올해부터 헬싱키-광저우 노선을 공급 확대해 연중 운항한다. 이번 하계 시즌에는 헬싱키에서 광저우를 포함한 중국 7개 도시로 향하는 노선도 함께 증편해 최대 주 42회 운항할 예정이다. 현재 핀에어는 광저우를 비롯해 베이징·상하이·충칭·홍콩·난징·시안까지 중국 7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 핀에어는 2008년 6월 인천-헬싱키 직항 노선 취항한 이래 인천~헬싱키를 거쳐 100 개 유럽 도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27개 도시와 미주 지역 10개 도시를 포함해 전 세계 140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다. 현재 인천-헬싱키 구간은 주 7회 운항 중이다. **외항사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 끌기** 터키항공은 허브공항을 이스탄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는 작년

10월 이뤄진 이스탄불 국제공항의 첫 개장에 이은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다. 이전 작업은 총 45시간이 소요됐으며, 4월 6일 토요일 밤 11시 59분에 완료됐다. 일케르 아이즈 터키항공 회장은 “항공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전 작업”이라며 “터키항공이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돋움하기까지 허브 공항의 역할을 수행했던 기존 아타튀르크 공항을 떠나 새로운 허브가 될 이스탄불 신공항으로 이전 작업 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터키항공만의 독보적 콘셉트로 전 세계의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레이트 국영항공사 에티하드항공은 수도 아부다비를 경유하는 승객 대상으로 호텔 2박을 무료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은 에티하드 홈페이지 또는 여행사를 통해 4월 10일~6월 15일 사이 항공권을 발권하고 호텔 예약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4월 21일부터 7월 15일 사이 여행하는 조건이 있다. 온라인 예약시 프로모션에 참여한 다양한 호텔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 글로벌 체인 호텔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월드 트레이드 센터, 크라운 플라자, 래디슨 블루뿐 아니라 인터콘티넨탈 아부다비 및 두짓 타니 아부다비 같은 5성급 호텔까지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100주년을 맞이한 영국항공은 스코틀랜드의 맥주 제조사 브루독과 함께 세계 최초 4만 피트 상공에서 양조된 맥주, 트랜스아틀란틱 IPA ‘스피드버드 100’을 선보인다. 영국항공의 호출부호 에서 이름을 딴 ‘스피드버드 100’은 맞춤 생산되는 IPA 캔맥주로, 5월 1일부터 영국항공의 일부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과 모든 장거리 및 단거리 항공 탑승객에게 독점 서빙된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여행 단신



프린세스 크루즈 “세계일주 어떠세요?”

지난 20년간 세계일주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는 프린세스크루즈가 오는 2021년 세계일주 일정을 공개했다. 또 조기 예약자에게는 선상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달러의 크루즈 머니, 무료 항공권,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전일정 선상 팁 면제, 무료 와이파이, 전문 식당 이용권과 와인 등이 포함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세계일주 일정은 총 111일간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유럽, 남미와 북미 지역 등 6개 대륙에 걸쳐 32개 국가의 50개 여행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수트라하버 리조트 호텔에서 즐기는 ‘부활절’

부활절 연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랜드마크 수트라하버 리조트에서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부활절 특별 이벤트 ‘해피 이스터’가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와 퍼시픽 수트라 호텔 가운데에 위치한 마리나 골프 & 컨트리 클럽의 키디즈클럽에서 부활절 당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행사가 진행됐으며 부활절 달걀 찾기, 부활절 달걀 장식 콘테스트, 토끼 분장 등 다양한 게임과 함께 푸짐한 상품이 나눠졌다.

온라인투어 함께 떠날수록 혜택이!

대표 여행기업 온라인투어(대표 박혜원)가 봄맞이 해외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노선과 관계없이 예약 인원에 따라 항공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3인은 1만원, 4인은 2만원, 5인 이상은 3만원 할인이 제공되며, 항공권 예약 후 ‘할인 요청하기’를 통해 할인 신청을 하면 할인된 금액 확인 후 결제가 가능하다. /이민희 기자